

나주배 육성 손놓은 市...주산지 명성 시들

**배박물관 자격 박탈에 75억원 들인 테마파크 잡초만 무성
관련 가공제품도 배죽 유일...타지역 6차산업 육성과 대조**

나주시가 민선 6기 들어 지역대표 특산물인 '나주배(梨)' 육성정책을 소홀히 하면서 배 주산지의 명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주배의 역사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배 박물관은 이미 박물관 자격을 박탈당하는 수모를 겪고 애물단지로 전락했으며, 수습직원을 들여 오픈한 배 테마파크도 잡초만 무성하고 일부 시설물은 잠긴 채 방치돼 있다.
특히 최근 전국 농산어촌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신선 농산물을 제가공해 제품 가치를 극대화하는 6차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지만, 나주배 산업에선 남의 나라 얘기다. 나주배 농민은 물론 나주시청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500년 전통의 나주배를 활용한 가공제품은 '배죽'이 유일하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올 정도다.
나주시는 이 같은 부작용을 막고 나주배의 명성을 높여줬다며 민선 6기 들어 농업

기술센터 산하 3개과를 배 테마파크로 옮겼지만, 이마저도 직원들이 분청을 오가느라 기본 업무수행마저 어려움을 겪는 등 되레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 민선 자치시대의 병폐인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물인 셈이다.
나주배를 대표하는 배 박물관과 배와 관련한 일부 시설물의 운영 실태를 살펴봤다.
▷박물관 자격 박탈 2년 지났지만, 개선 의지는 '실종' = 나주시 금전면 영산로 국도 1호선에 접한 나주배박물관은 우리나라의 배 재배현황과 고문헌으로 본 나주배, 생활 속에서 나주배가 이용되는 모습 등을 모형과 영상으로 연출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배박물관으로 지난 1992년 개관해 2004년 리모델링으로 새롭게 태어났지만 개관한 지 22년 만인 지난 2014년 박물관 자격이 박탈됐다.
나주배박물관이 이 같은 수모를 겪게 된

것은 2종 공립박물관 자격요건인 유물 60점 이상 보유, 82㎡ 이상 전시실 및 학예사 채용, 수장고 및 화재·도난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주배박물관은 이 같은 자격박탈 의견 외에도 체험학습 프로그램 전무, 노후한 시설물, 고장 난 장애인 편의시설(리프트) 방치 등 박물관이란 명칭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각종 시설물의 관리 부실이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감지 센서가 없는 구형 벽걸이 영상 모니터는 방문객이 없는데도 하루 종일 상영되고 있었으며, 배를 종류별로 보존해 놓은 액집표본은 일부 샘플이 손상돼 액체 위로 배가 둥둥 떠 있는 상태였다.
특히 1층으로 내려가는 장애인 리프트는 '고장'이란 안내문이 붙은 지 오래고, 나주배 체험학습이나 시식·구입할 코너는 단 한곳도 없었다.
▷나주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은 애물단지 전락 = 노안면 국도 13호선에 있는 나주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은 지난 2004년 7억원을 들여 건립했지만, 현재 방

치돼 있다. 나주시는 지난 2011년까지 직영으로 관리하다가 판매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 위탁으로 전환했지만, 위탁운영에 나선 모 영농법인과 개인 모두 경영난으로 임대계약기간조차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철수했기 때문이다.
▷75억원짜리 배테마파크는 잡초만 무성 = 지난 2010년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일대 4만7000여㎡ 부지에 사업비 75억원을 들여 조성한 배테마파크를 방문하면 조망마저 꺼진 어두운 나주배 전시홍보관을 만나게 된다. 나주배 홍보관이지만 내부에는 배와 관련된 제품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나주배의 역사가 500년이 넘었지만 홍보할만한 배 관련 제품이 없는 탓이기도 하다. 나주시의 한 관계자는 "나주배로 현재 생산되고 있는 제품은 '배죽'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배 품종별로 조성한 외부 테마공원은 곳곳에 설치된 표시판이 부서지고 잡초만 무성한 상태다. 또 배를 이용한 외인체험 공간으로 조성된 외인 저장고는 테마파크 준공 이후 활용은커녕 자물쇠로 입구를 막아놨다. /나주=순영철기자 ycsong@



해어화·허삼관 등 촬영 '순천드라마촬영장' 관광공사 선정 '가족과 함께 가볼 만한 곳'

순천드라마촬영장이 한국관광공사 추천한 '응답하라! 다시 가보고픈 추억의 가족 여행지'로 선정됐다.
4일 순천시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5월 가정의 달과 봄 여행주간을 맞아 가족과 함께 가볼 만한 여행지를 6곳 선정 발표했다.
순천드라마촬영장은 중년층은 향수에 잠기고 청소년은 드라마 속 당동네의 흔적을 더듬을 수 있는 공간이다.
골목길 따라 빛바랜 삼정 간판과 담벼락이 기대면 세월의 온기가 전해지고, 촬영장에 들어서면 교복을 빌려 입고 1960~70년대 골목을 활보하는 청춘들과 마주치게 된다.
추억의 음악실, 이발소, 극장, 옛 상가 등 드라마나 영화의 무대가 된 공간들도 아련한 옛 향수를 자극한다.
드라마촬영장은 순천 읍내 풍경과 서울 번두루, 그리고 멀리 언덕에 자리한 병천동 달동네로 만들어졌다.
7080 교복과 교실체험이 20대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드라마촬영장에는 올해 3월까지 17만1908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만4539명 보다 50%나 증가한 것이다.
순천드라마촬영장에서는 사랑과 야망, 에덴의 동쪽, 제빵왕 김탁구, 강남블루스, 허삼관, 해어화 등이 촬영됐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인구 10만명 회복 기념행사 나주시 예산 과다지출 지적

재정난을 겪고 있는 나주시가 인구 10만명 회복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면서 과도한 예산을 지출해 빈축을 사고 있다.
4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29일 금성관에서 '10만 회복' 자축과 함께 인구 '20만 시대 달성'을 주제로 인구 10만명 회복 기념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45명으로 구성된 서울 팝오케스트라와 가수 김연자, 7인조 걸그룹 와셋 등이 초청 공연을 펼쳤으며, 불꽃놀이 행사 등의 식후행사도 진행됐다. 이날 하루 행사비용으로 1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시민들은 나주시가 그동안 혁신도시 인구유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에서 인구 10만명 돌파 기념 행사를 진행할 것에 대해 이해는 하지만, 단 하루 행사로 1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써가면서까지 '보여주기식' 화려한 무대를 장식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예산 1억원이면 결식 노인·아동 등 불우이웃 2만명에게 5000원짜리 식사 한끼를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나주시 관계자는 "각 지역이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심화돼 지역사회에 희망을 주고 싶어 행사를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생물방제연구센터 개발 친환경미생물 제품 나주 친환경디자인박람회 전시 관심 집중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생물방제연구센터가 2016 세계친환경디자인 박람회를 통해 그동안 연구개발한 친환경미생물 제품을 선보이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생물방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나주 산포면 일대에서 5일부터 29일까지 25일간 진행되는 2016 세계친환경디자인 박람회에 참가한다.
생물방제연구센터는 이번 박람회에서 지금까지 연구개발한 친환경유기농자재, 축산용보조사료, 수산양식용보조사료 등 친환경미생물 제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전시제품으로 자체 개발한 친환경유기농자재 '옥천'(등록공시-3-1-42)을 비롯한 선충방제제 '네마토킬', 축산약취저감용 '에어라', 축산용보조사료 '락토BCC', '프로믹스', '청정활력생균제', '워낭소리',

'갯지렁이 갤러리' 벽화 눈길

순천만국가정원내 설치된 '갯지렁이 갤러리'가 아름다운 벽화로 재탄생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갯지렁이 갤러리가 아름다운 벽화로 재탄생한 이유는 그동안 많은 관람객이 '갯지렁이 가는 길' 정원에 들어서면 항상 물어보는 '갯지렁이가 어디 있어요'라는 질문 때문이라는 게 정원측의 설명이다.
총 180㎡의 갯지렁이 갤러리는 마치 갯벌 속을 걸어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벽과 천장 전체가 갯벌과 갯벌 생물들로 표현돼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수산양식용 보조사료 '어부지리' 등이 있다.
생물방제연구센터는 전남도 출연 연구기관으로 친환경 생물적 방제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5톤 규모의 미생물발효기와 고가의 연구·분석 장비를 활용해 연구개발과 생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생물방제연구센터에서는 친환경 농수축산용 미생물 10여종의 제품을 등록했으며, 올해 5월부터는 이들 제품의 조달 등록을 통해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중형기자 golee@kwangju.co.kr

순천의료원 청렴 실천 '청나비 운동' 선포식



순천의료원 직원들이 최근 청렴실천을 위한 '청나비' 운동 선포식을 했다.
'청나비'운동은 '청렴은 나로부터 비롯된다'란 의미를 담고 있으며, 청렴정신이 직장내 나비효과로 확산되기를 염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청나비'선포식에서 정효성 순천의료원장과 임직원들은 서로 '청나비 캠페인 바튼'을 달아주는 퍼포먼스를 통해 청렴 실천 결의를 다지고,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 확립을 약속했다.
정효성 순천의료원장은 4일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직원들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의약품·의료장비 구매 등 계약행정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부패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사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SKY in Seoul

초혼	추천회원	재혼
<p>남</p> <p>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8~45세 시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공무원(5급~9급) 27~42세 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삼성, 현대, LG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p>	<p>여성</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아나운서,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튜어디사,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p>	<p>남</p> <p>의사, 변호사 32~72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4세 대기업 간부 36~67세 회사원, 자영업 33~61세 무술산 여성 희망 33~48세</p> <p>여성</p> <p>VIP 희망 여성 32~45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1세 공무원, 교사 32~54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0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p>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해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옥상 방수 단열 한번시공으로 끝!
강철로 만든 스틸단열방수가 정답

하루종일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옥상 단열과 방수는 중요한 건물관리입니다. 동파, 누수, 균열방지에는 스틸단열방수 판넬이 가장 적합합니다. 칠하고 붙이고 씌우고 다해 봐도 오래 가지 않는 물새는 옥상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런 고민 단열방수판넬 시공 한번으로 끝!

부식, 미끄러짐, 물샘물 없습니다. 페인트식 바닥 부착형이 아닙니다. 본사에서 개발한 스틸단열 방수 판넬은 불소수지에 근접하는 내후성과 내식성이 우수한 강철판넬이며 옥상 바닥이 패이고, 균열되어 있어도 시공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반영구적 신공법 특허방수입니다.

02) 521-4405
1599-7652
지역 대리점 모집
자재구입 보증금 2천만원 가능하신분